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97호 발행일 : 2004년 9월 19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기사를 주실 분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이제는 평신도 전문인선교와 집중선교를" 해외선교위, 수요일예배시간에 캄보디아선교보고해

지난 8월 1-8일까지 해외선교위원회와 의료선교부가 계획하여 추진한 캄보디아 선교보고가 지난 15일 수요일예배시간에 있었다. 이날 담임목사는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평신도 전문인 선교가 더욱 필요하다. 둘째, 선교도 집중이 필요하다. 지역별, 분야별로 사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능력있는 선교인들이 바로 우리교회에서 나오기를 기대한다. 선교지에서 20대 3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40대 5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기를 권면했다. 캄보디아 현장에서 의료선교하는 모습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관람한 후 서준규 의료 선교부장의 보고를 들었다. 선교단의 부족, 의료장비의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종합적인 사역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희망을 발견했다고 했다. 크리스천 엘리트를 양육하여 현지 전문인력으로 투입하는 선교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이었다. 또 본교인과 현지인이 함께 호흡하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부분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이 나약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현지에서 발휘하는 우리 청년들의 섬김의 자세를 통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성민 선교자의 현지 사역보고가 있었고 캄보디아청년의 간증도 들었다.

고등부의 떡볶이 파티, 촌스럽고도 즐거웠던 시간

지난 주일 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정신학원 교정에서 고등부 떡볶이 파티가 있었다. 학업과 입시/취업 등의 이유로 맑은 가을 하늘 한 번 쳐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요즘 고등학생의 현실이다. 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컴퓨터 앞에서 대

선교팀이 부른 캄보디아어 찬양으로 선교 보고를 마무리했다.

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한 학생들과 야외로 나와 짧은 시간이나마 파티를 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전혀 매력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고전분식, 떡볶이로 파티를 한다는 것이 촌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날 예배를 마치고 다 함께 교정으로 나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웃음과 사랑으로 만든 떡볶이는 딱딱하기만 한 우리의 일상을 생동감 있고 즐겁게 만들어 주었다.



레인보우의 6개월, 놀면서 예배드리고

통합아동부 레인보우가 2004년 3월 첫예배를 드리고, 약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처음에 비해서 제법 아이들 수도 늘었고, 예배 준비에 있어서도 이제는 틀을 갖춰가고 있다.

평신도사역의 좋은 본모기를 보여주었던 레인보우가, 이제는 유명한 전도사와 함께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돋움하는 과정에 있다. (2면에서 계속)



9월당회, 부목사 계속청빙 및 2005년 교회요람위 구성을 결의

9월정기당회가 9월11일 새벽6시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세례사역팀 신설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국내선교3 위원회에서 태풍 메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을 긴급지원한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서울 모테트합창단이 주관하는 고대천덕 신부 추모음악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추인하고, 육군 여호와니교회회를 대상으로 세례식이 9월18일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교회가 지원하기로 한 것을 보고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영 안전도사의 미국 어와나연수에 대해, 초등부 문희곤 전도사 사임에 대해 보고하였다. 김성관, 이창현, 정희성, 윤덕영, 정

현희 목사를 부목사로 계속청빙하기로 하였고, 임시제직회를 15일 수요일예배시간 후 열어 제직회의 결의를 얻은 후 노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2005년 교회요람 제작을 위한 계획보고가 있었으며, 최창섭, 전세표, 양동훈, 이영자, 김성배 장로, 이창현 목사로 요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평양노회 가을노회 일정과, 정책당회 일정을 정하고, 유아 세례의 자격에 대해, 그간 양부모 모두 세례교인이어야 한다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 된다고 총회헌법이 수정된 것에 맞추어 우리교회의 유아세례 관례도 조정하기로 하였다.

비온뒤의 트레이닝

유소년축구클럽이 지난주일(12일), 오후 1시30분부터 하반기 첫모임을 가졌다. 중예배실에서 조편성이 있는 후, 곧바로 운동장에 나가서 연습을 시작하였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고, 코치들과 어린 선수들은 트레이닝에 여념이 없었다.

현재 축구클럽의 회원은 62명이고, 15명이 새로 등록하였다. 중등부 회원은 같은 날 11시 30분에 연습을 하고 있다.

중보사역팀, 세미나참석 계획

중보기도사역팀은 2004년 9월 9일 (목) 봉주에서 모임을 가졌다. 팀장, 부팀장과 정영환 목사, 전은숙 권사 등 모두 10명이 모임을 가졌다. 코스모스의 색깔들은 선명히 피어 파란 가을 하늘을 수놓는 듯 하늘 거렸고 8월 한 달(방학동안) 지내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중보기도 사역팀들은 10월 4일~6일 중보기도 세미나 지구총교회 주최로 2박 3일 열리는 데 주님의교회에는 정영환목사, 전은숙권사, 이일국집사, 이혜자집사 4명이 참석하기로 하였다.

전국구 구역모임

OX카드로 의사표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모두들 긴 방학을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12명의 구역원이 참석하였다. 새로 받은 구역 공부 교재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한편 O와 X가 쓰여진 카드를 한장씩 나누어 주었다.

구역장은 한가지 질문에 대하여 차례차례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얘기하는 사람은 앞에서 이미 다 했거나 너무 순서를 오래 기다리게 되어 지루해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한가지 질문에 '예'와 '아니오'의 의사표현을 하게 한 다음 '예' 한 사람과 '아니오' 한 사람을 몇 사람씩 번갈아 가며 질문했다.

이날의 주제 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인정하고 실감합니까?"였다. (2면에서 계속)

세례사역에도 전문화가 요청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세례예식을 전담해서 행정과 예식전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팀이 새로이 구성되었다. 현재 교구별로 1~2명 추천을 통해 선정된 8명의 봉사위원이 전담교역자와 함께 세례에 관한 모든 부분을 진행해 갈 것이다. 세무 조식을 보면, 크게 일반행정, 교육행정, 예전의 3부분으로 나누고 서류접수부터, 세례자 연락 및 1:1 중보기도 그리고 교육장 환경미화 및 교육여건확립과 세례식 당일 예전에 필요한 일체의 진행사항을 준비하고 이끌어 갈 예정이다. 팀원으로는 정희성(담당목사), 정재훈(팀장), 류석우, 이명자, 전은숙, 박인숙, 현순자, 서금란, 지영민(이상 9명)이며 앞으로 세례사역이 좀더 구체화되고 확장이 되면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예배부에서 담당하던 사역을 팀체제로 전환한 것은 사역의 전문성을 갖추고 세례교육 및 예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세밀한 지원과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의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례일수를 더욱더 늘리고,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에 대한 세례자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목회적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세례사역을 통하여 주님의교회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중앞에서 고

백하며, 새로운 삶을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하는 많은 세례자들이 더 많이 배출될 것을 기대하며 더욱더 감동이 있는 고백의 현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요구된다.

(1면에 이어서)

레인보우의 6개월, 놀면서 예배드리고

매주일의 예배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활기찬 아이들의 꿈썬터가 되고 있다. 9월 12일 주일, 하나님께 송축하는 신나는 새 찬양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다. 시작 전부터 공을 가지고 뛰어놀던 어린아이들은, 미니배구게임이 시작되자 더욱 즐겁게 뛰며 서로가 하나되는 시간이 되었다. 지금까지 언제나 지켜봐주시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레인보우가 되길 소원한다.

중국선교사의 설교말씀

“‘Back to Jerusalem’ 위해 준비되는 한국과 중국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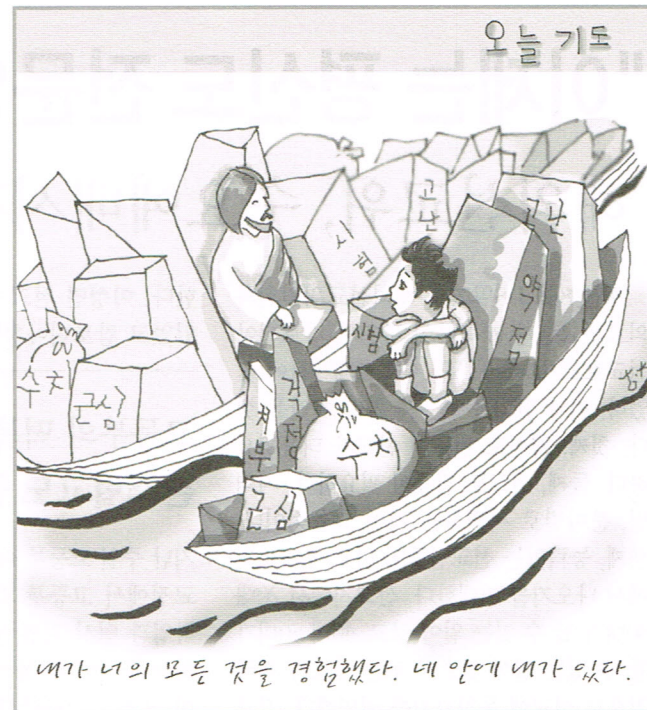
9월 16일 목요일 예수전도단모임은 중국선교사 이복이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다. 목요모임에서 한국여성으로서 첫 설교자였다. 그녀는 예수전도단을 중학교 3학

년 때 알게 되고 선교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미국인과 결혼한 뒤 91년도에 중국으로 향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가사의 찬양이다. 그녀는 중국을 선교하려는 비전에서 넘어 '선교중국'의 비전이 있다고 한다. 중국이 선교의 나라로, 각 나라마다 중국선교사가 어디든 있는 그날을 꿈꾸었고 그 날이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함을 감격하고 있었다.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문제와 방해는 바로 크게 되고 싶어하는 '욕심'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두려움' 두 가지가 있다. 예수님이 부를 때 yes로 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머리 속에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과 결과를 미리 내다보는데서 오는 두려움이 머리속에 오래 있으면 실제적으로 발을 한 발 내딛지 못하고 만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너 있는 것만 쥐'라고 격려하신다. 시편 131편에 나오는 표현처럼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헌신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겸손히 나오면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

예수전도단은 앞으로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준비중에 있다.



■ 양육클래스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	과 목	시 간	강 사	장 소
주 일	새가족 모임	오전 10:30 오후 12:30	새가족 사역팀	4층 당회원실
	리더훈련주일반(필수)	오후 1:30	김 성 관	3층 초등부실
	제자의 삶(필수)	오후 1:30	정 영 환	3층 소년부실
	성소로 들어가는 삶(예배학교)	오후 1:30	문 희 곤	5층 중보기도실
	그리스도인과 생활법률	오후 1:30	김 완 중	4층 대회의실
	불어성경과 유럽문화	오후 1:30	주 경 복	5층 청년부 2실
	제2의 인생과 그리스도인	오후 1:00	남 장 희	5층 상담실
	영어성경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오후 1:00	김 영 숙	지하 대화의방
화	Seeker 소그룹 리더훈련	오후 7:30	문 동 학	3층 초등부실
	제자의 삶 (필수)	오전 10:30	우 동 윤	3층 초등부실
	A Spiritual Journey, John	오전 10:30	김 현 령	5층 중보기도실
	믿음의 여인들	오전 10:30	이 희 숙	5층 청년부 2실
	그리스도인의 기초다지기	오전 10:30	정 희 성	5층 찬양연습실
수	크리스찬 음향학교	오후 4:00	조 성 곤	지하 찬양연습실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	오후 1:00	김 광 일	5층 찬양연습실
목	리더훈련 목요반(필수)	오전 10:30	김 성 관	3층 초등부실
	고린도를 찾아서(고린도전서)	오전 10:30	정 희 성	5층 중보기도실
	성령의 학교	오전 10:30	윤 덕 영	지하 찬양연습실
	중보기도학교	오전 10:30	정 영 환	5층 찬양연습실
금	그분의 발자취(복음서)	오전 10:30	이 창 현	지하 찬양연습실
	말씀하시는 하나님(로마서)	오전 10:30	박 의 일	5층 찬양연습실
	위기의 리더십(느헤미야)	오전 10:30	이 인 호	1층 제3집회실
	기쁨으로 가득찬 편지(빌립보서)	오전 10:30	이 호	3층 초등부실

(1면에 이어서)

전국구구역모임

ox카드로 의사표현하면서 많은 대화를

모두들 갑작스러운 질문에 더러는 천천히 카드를 들었지만 대부분 0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분은 가만히 계셨다. 그 후로 카드를 드신 분 중에 몇 분에게 어

떤 계기로 그렇게 느끼며 어떻게 실감하는지 물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중에는 요즘 형편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는다고 말씀해 다른 구역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모든 대화가 끝날 즈음 준비한 쪽지를 구역원들에게 돌리고 같이 한번 묵상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교회소식

1.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기도회

수험생 자녀를 위한 학부모기도회가 10월2일(토)부터 12월18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 3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회 인도는 김현령전도사가 맡습니다.

2. 세례교육

장년세례 및 입교교육이 9월19일부터 5주간 주일 오후1시30분에 제3집회실에서 있으며, 청소년세례 및 입교교육이 10월3일부터 3주간 주일 오전 11시 교회학교사무실에서 있습니다. 1층 자원봉사데스크로 신청바랍니다.

3. 추석연휴 교회활동안내

주방봉사는 다음주일(26일)에 쉬며, 설만한 물가도 27-29일 문을 열지 않습니다. 구역모임, 양육클래스, 수요일성경공부, 구역장성경공부가 9월26일-10월2일 주간에 모두 쉬며, 새벽기도회는 계속 모입니다.